IBKS Spot Comment

화학/정유/에너지

이동욱

02) 6915-5671
treestump@ibks.com

[화학/정유/에너지]
리튬 가격 바닥론 대두

간펑 강세 발언과 포스코홀딩스의 1.1조원 리튬 자산 베팅

주요 리튬 공급업체인 간펑리튬이 세계 공급 과잉으로 부진을 겪어온 리튬에 대해 강한 상승 전망을 제시하면서, 어제 리튬 가격과 리튬 생산업체 주가가 동반 급등했다. 전일 열린 중국 리튬산업 포럼에서 간펑리튬 회장은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중기 수요 전망을 제시하며, 사실상 리튬 시장이 바닥을 통과했다는 신호를 보냈다. 간펑리튬은 내년 세계 리튬염 수요가 전년 대비 30~40%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배터리급 탄산리튬 가격 역시 내년 상반기 중 톤당 15만~20만위안 수준(현재의 약 2배)까지 회복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해당 발언 이후 광저우선물거래소 리튬 카보네이트 1월물은 개장 직후 상한가(+9.0%)를 기록한 뒤 94,800위안/톤으로 마감하며 작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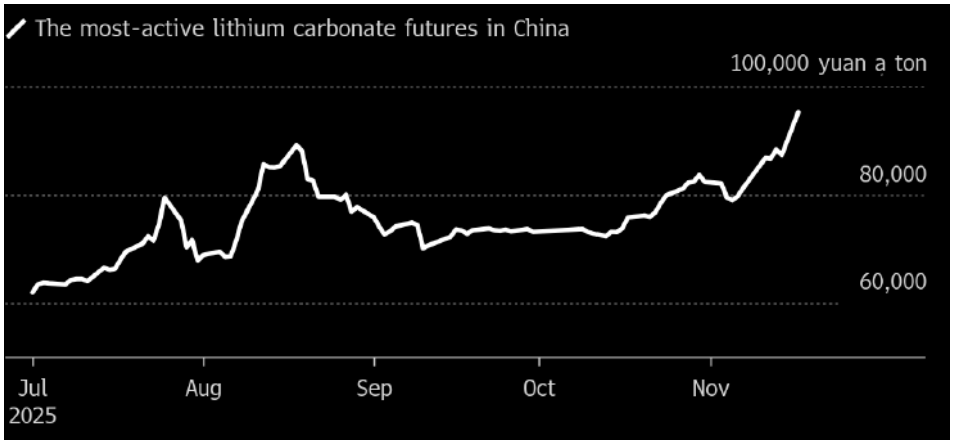
이번 가격 급등의 본질적인 이유는 리튬 수요에 대한 재평가와 공급 제약 리스크의 재부각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점이다. 우선 수요 측면에서, 올해 들어 중국 신에너지차 판매는 10월 누계 기준 1,120만대(YoY +34%)를 기록하며, 연간 1,350만대 돌파가 사실상 확실시되고 있다. 여기에 CATL/BYD 등 주요 업체들이 내년 LFP 배터리 비중이 50%를 상회할 것으로 가이던스를 제시한 점, 중국 전력망 ESS 설치 목표가 올해 55GW(YoY +72%)로 상향 조정된 점 등은 간펑리튬이 제시한 리튬염 수요 30~40% 성장 전망에 실질적인 근거로 작용하였다.

또한 공급 면에서도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세계 최대 스포듀민 광산인 Greenbushes의 증설 프로젝트는 기존 내년에서 내후년으로 연기되었으며, 아프리카 맨티컬 및 짐바브웨 리튬 프로젝트는 정치적 리스크로 생산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칠레의 SQM과 Albemarle 역시 환경 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올해와 내년 생산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주요 리튬 컨설팅 기관들의 최신 추정에 따르면, 내년 세계 리튬염 공급 증가율은 당초 22~25%에서 15~18% 수준으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포스코홀딩스는 11월 중순 약 1.1조원(미화 약 8억 달러)을 투입해 호주와 아르헨티나 리튬 자산에 대한 지분 및 광권을 추가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동사의 리튬 투자는 전기차 수요 둔화와 저가 국면을 활용해 자원 내재화를 강화한 전략적 베팅으로, 호주의 스포듀민 광석과 아르헨티나 염호 광권을 동시에 확대하며 리튬 장기 조달 능력과 수직계열화 옵션을 확보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포스코퓨처엠의 원가 경쟁력과 리튬 내재화 비중을 높이는 한편, 향후 리튬 가격 반등 시 자원 레버리지와 마진 방어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포지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함으로 평가된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리서치본부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해 최종 결정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림 1. 중국 리튬 선물 가격 추이



자료: Bloomberg, Guangzhou Future Exchange, IBK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는 조사분석자료 작성에 참여한 외부인(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등)이 없습니다.
조사분석 담당자 및 배우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